

특별기획

“익산 모든 행정 거버넌스에 초점”

군산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군산시는 제243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이해 근대역사박물관 일원에서 안전 캠페인을 8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군산시, 군산소방서, 전 기간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공사, 군산도시가스(주),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캠페인은 기후변화로 인한 여름철 태풍 폭우 등 풍수에 대비 안전수칙과 폭염대응 행동요령이 담긴 홍보물을 배부하며 시민의 재산과 귀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수칙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전기·소방·가스분야의 점검반을 구성해 원도심 일원 노후주택을 중심으로 전기·소방시설, 가스밸브 등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병행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지방소득세 전년대비 증가

군산시의 5월 지방소득세는 지난해 대비 7억 5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는 5월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납부 결과 12043건에 22억 4500만원이 신고됐으며, 이 가운데 17억 4700만원이 납부됐다고 8일 밝혔다.

이와 같이 지방소득세가 증가한 것은 성숙한 납세자의 성실신고 및 지방소득세의 납부 환경 개선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국제형 홈택스(Hometax)와 지방세 납부시스템(Webtax)의 연계, 스마트 위택스 및 지방세 ARS 등 편리하게 신고·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납기 내 납부건수가 증가되기도 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경찰 중앙지구대 신임 경찰관 환영식 개최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는 지난 7일과 8일 지구대장 및 순찰팀장 등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공무원으로 첫발을 내딛는 김성연 순경, 김가의 순경의 환영식을 개최했다.

이날 환영식의 컨셉은 “중앙지구대 가족 맞이”라는 주제로 하여 신임경찰들이 낯선 환경을 가슴속에 담아 열심히 배우고 초심을 잃지 않는 경찰관이 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특히 앞으로 12주간의 실습기간 동안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의 일원으로 중앙경찰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기초 삼아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에 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익산=장양원기자】

정헌율 시장 “정책 결정 전에 시민 의견 듣는 사전 절차 꼭 필요” 강조

정헌율 익산시장이 지난 7일 간부회의 자리에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서는 거버넌스 행정이 필수적이다”며 “모든 행정에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춰 일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시장은 “사회가 복잡·다양해지고 시민의식도 더욱 성숙해져 행정과 시민과의 관계는 등등한 위치에서 협력적인 관계로 변화되고 있다”며 “정책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사전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통 1차적인 거버넌스는 행정이 주도적으로 수행한 후 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최종결정을 이뤄내지만 정 시장이 강조하는 거버넌스는 시민과 기

업 단체 등과 신뢰로써 협력체계를 구성하는 뉴거버넌스의 개념과 가깝다. 정 시장은 취임 후 직후 출몰 거버넌스 행정을 강조해왔다. 실제로 얼마 전 막을 내린 서동축제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주도함으로써 예년보다 흥성하고 다채로운 참여형 축제였다. 성공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원도심 도시재생 아카데미도 상인들과 주민들의 정책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한층 높여주고 있다.

이는 시에서 추진되는 정책에 시민과 단체, 의회 언론 등 다양한 의사결정체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사전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해 신뢰를 쌓아갔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거버넌스 개념을 접목할 경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해 낼 수 있다.

또한 정 시장은 고질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악취에 대해서도 거버넌스 관점을 강조했다.

정 시장은 “악취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민원인의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인드를 함양하는 것도 거버넌스 행정이라 할 수 있다”며 “설령 민원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주장을 할지라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설득하고 설명해 주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이해해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건설·기계 노동조합원 솔베이 공장 신축현장 발생 폭행사건 관련

민노총 플랜트건설 전북지부에 공개사과 요청

군산지역 플랜트건설·기계 노동조합은 8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연단지 솔베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민노총의 근로자 폭행사건 기담자에 대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군산지역 노동조합원 20여명은 “솔베이공장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에 대해 민노총 플랜트건설 전북지부에 공개사과와 폭력행위 재발방지”를 요청했다.

이들은 “민노총은 비조합원 및 타 노동조합원들에게 비인간적인 차별대우를 행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무분별한 집회로 인해 지역 사회에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새만금공단 입주 기업과 건설사들이 큰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노총은 3개월 전 솔베이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를 폭행하고 이를 취재하던 기자를 폭행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이렇듯 하지 않고 또 다시 지난 2일 일용직 근로자를 폭행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근로자를 위해 존재하는 민노총이 자신들의 이권을 앞세워 하루 일당 1만원을 벌기 위해 출근하는 근로자를 폭행하는 등 폭력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군산지역 플랜트건설·기계 노동조합원들은 “생계를 위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다시는 폭력시태와 물리적인 협박으로 일을 하지 못해 생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민노총은 폭력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 두여마을, 행자부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2년 연속 도내 1위

익산시 여산면 두여정보화마을이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2016년도 정보화마을 운영평가에서 2년 연속 도내 1위를 차지했다.

행정자치부 평가방식은 지역경쟁력 강화·지역공동체 활성화·정보격차 해소분야 등 3개 분야 11개 지표로 전국 351곳 정보화마을을 대상으로 객

관적인 평가를 실시했다. 익산 두여정보화마을은 마을운영위원과 마을주민들이 소통과 협력으로 11개 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행정자치부 평가 선도마을에 선정됐다. 두여정보화마을의 위원장과 관리자는 적극적인 체험활동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전자상거래 상품 발굴과 직

거래 판매활동으로 전복권 39곳 정보화마을에서 1위를 차지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익산시 망성면 어량정보화마을과 성당면 두동관파마을은 발전마을에 선정돼 전북의 위상을 높였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8일 오전 11시 군산시 옥도면 비응항에 위치한 비응도 출장소를 해경센터로 승격시키는현관 제막식 행사를 가졌다.

군산해경 비응도 출장소 해경센터 승격

군산 해양경찰서 비응도 출장소가 해경센터로 승격됐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8일 오전 11시 내·외빈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시 옥도면 비응항에 위치한 비응도 출장소를 해경센터로 승격시키는현관 제막식 행사를 가졌다.

해경은 바다를 끼고 있는 주요 도시에 해경서를 두고 치안 수요가 높은 항·포구에 해경센터 수, 소규모 항·포구에는 해경센터 소속의 출장소를 두는 조직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비응도 해경센터의 이번 승격은 다기능 복합 어항으로 지난 2008년 만들어진

비응항이 치안수요가 늘어나고 안전사고 발생도 잦아지면서 해양사고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비응항에 해경센터가 들어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조치다.

승격으로 비응도 해경센터는 경찰관 4명에서 15명으로 현강인력이 늘어나고, 장비도 순찰정(4급 선박)과 순찰차가 배치된다.

관할은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과 비응항 군산항 남방파제로 이어지는 해안가 및 인접 해상으로 면적은 약 200km이며, 예하에 센터의 이번 승격은 다기능 복합 어항으로 지난 2008년 만들어진

【군산=문정곤기자】

원광대, 후마니타스 장학생 선발 장학금 수여

원광대학교 총장 김도중은 2016학년도 1학기 후마니타스 장학생을 선발하고, 부문별 및 등수에 따라 10만 원부터 팀당 400만 원까지 총 1억 원의 장학금과 상장을 수여했다.

장학생 선발을 위한 각 부문별 대회 및 평가에는 일반계열 및 의·약학 계열 총 1,002명의 학생이 응시해 독서퀴즈대회 40명, 독서시험 109명, 논술 123명, 토론 11명 등 총 294명이 장학생으로 선발됐으며, 시상식은 7월 저녁 학생지원관에서 열렸다.

2011년 신설된 원광대 후마니타스 장학금은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 및 글쓰기 능력을 기르고, 기존 장학금과

차별화시킨 장학혜택을 위해 마련됐으며, 지금까지 총 9회에 걸쳐 2,348명에게 총 22억 6,62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학생들은 미리 발표된 인문영역의 ‘광장(최인훈), 사회영역의 ‘역사란 무엇인가?(E. H. Carr)’, 예체능 영역의 ‘나의 서양 미술 순례(서경식)’, 자연영역의 ‘침묵의 봄(레이첼 카슨)’ 등 4권의 선정도서를 읽고, 각 부문에 응시했으며, 2인 1조로 팀을 이뤄 경쟁한 토론대회는 비판과 옹호 팀의 입장을 정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시 내년도 국가예산 추진 상황 보고회 개최

익산시는 지난 7일 정헌율 익산시장 주재로 2017년 국가예산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고 국가예산 추진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상황을 점검하고 기재부와 국회 심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각 부서가 추진하고 있는 2017년도 국가예산 130개 사업에 대한 부처별 상황 파악을 위해 마련됐으며, 일부 반영된 사업에 대해 부처별, 사업예산 상황 등 미반영 사유를 점검하고 향후 진행되는 기재

부 및 국회 심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부처에서 전액 반영된 사업과 익산 고도보존 육성사업 등 부처예산안에 일부·미반영된 사업에 대해 기재부 심의 단계에서 국가예산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익산=장양원기자】

문제는 싱크대다

Why?

“씨서리”를 사랑해야 하는가

- 싱크대 배수통 오래 쓰면 찌든때와 막힘
- 스물~스물 올라오는 음식물과 불쾌한 냄새
- 오래 사용한 싱크대 배수구를 소독하고 싶다면
- 믿을수 있는 국산, 특허 제품
-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설치, 사용 가능

(주) 코포스

청결한 주방문화를 창조하는 기업

각 지역 총판 및 딜러모집 (여성에게 유리한 사업입니다.)

광고 게재기간동안 공동구매시 설치비 30%할인 행사합니다.

코포스에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새로운 형태의 창업”을 제안합니다.

홈페이지 www.seeseri.com / www.씨서리.com을 방문하시면 상품정보, 각종동영상, 자세한 자료, 사업의 비전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 이병기 010-5628-1256. see8709@naver.com

“씨서리” 실제 설치!

정소액 [학소]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설치, 사용 가능

수령액 없이 배수통이 찌든때와 막힘 없이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식용액 사고 열려서 깨끗합니다.